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 '순조'

지난해 138개교·올해 172개교 등 총 310개교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활성화... 소통·협의문화 확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회의·토론·상담·동아리 등

의 연구 및 공동체 활동,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의 장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동안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교무회의 및 자치기구 등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대부분의 단위 학교에는 협의 공간이 미비해 도서관,

교실 등을 빌려 소통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38개교에 이어 올 상반기 78개교에 학교자치 복합공간을 조성했다. 이어 하반기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94개교에서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까지 이 사업을 희망한 총 310개 학교에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편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이 마

무리되면 교사회,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소통과 협의 문화가 확산돼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간이 바뀌면 그곳의 에너지도 바뀌는 만큼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회의 공간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자치 복합공간은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학교급식 담당자인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앞장'

도교육청,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협약 체결 청소년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방지 등 협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교육청과 한국노총이 손잡고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청소년들을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전세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과 교육자료 제작·보급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노동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원 직무연수 개설 및 노동인권동아리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협의사항으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 △직업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재육성을 위해 노동자 자녀를 위한 맞춤형 학습 전략 및 진로·진학 컨설팅 등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이 보호받고, 교육공동체의 노동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봉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채식식단 좋아요"

영양사 대상 조리아카데미 성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6일부터 학교급식 담당자 인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채식 식단과 조리법을 배운 이번 아카데미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채식 전환 교육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유정희 센터장은 채식식단을 위한 전통식재료(장류)에 대한 이해를 국민식생활네트워크의 윤정희·이승환 강사는 학교급식 식단에 적용 가능한 채식 요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정은성 기자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실습한 조리법이 학교 현장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환경급식이 학교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저탄소 환경급식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채식 식단 레시피 개발 과정과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석학들, 수소연료전지 분야 논의

우석대, 19일 '수소연료전지 국제 콘퍼런스'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문화관 5층 화상 회의실에서 '제7회 수소연료전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로랑 안토니(Laurent Anton) IEC TC105(수소연료전지기술) 의장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프랑스·노르웨이·캐나다·독일 등 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학 15명과 국내 전문가 및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 앞서 참석자들은 전북 소재 두산퓨얼셀과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기술 투어를 가질 계획이다. 이

후 우석대학교 문화관 회의실에서 △각국의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연료전지 정책 동향 △국제표준화와 연료전지 상용화와의 연계성 △각국의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과 연구·개발 현황 등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를 기획한 이흥기(에너지공학) 교수는 "수소경제표준화위원회 위원장은 "전라북도 안주군의 수소연료전지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로 영어실력 '쑥쑥'

전북대, 두달 여 동안 진행 영문 첨삭지도 등 추가 교육

학생 영어능력 향상 위해 매년 실시... 우수작은 THE JBNU Globe 11월호 소개



전북대학교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사고력 및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2022 총장배 영어에세이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학교 총장 김동원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사고력 및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2022 총장배 영어에세이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 국제협력처 외국어글쓰기센터가 주최하고 혁신지원사업단이 후원한 이번 콘테스트는 학부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주제를 제시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앞서 두 달 동안 집수를 받았다. 총 147편이 출품한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총 21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심사 결과 학부과정에서는 마샤 그레이스 펜도(바이오메디컬공학부), 대학원 과정에서는 위유문(나노융합공학과) 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대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우수작은 전북대 신문방송사 'THE JBNU Globe' 11월호에 소개된다. /정은성 기자

심재우 전북대 외국어글쓰기센터장은 "영어 글쓰기는 대학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능력"이라며 "전북대 외국어글쓰기센터가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작품·삶에 대한 그의 진솔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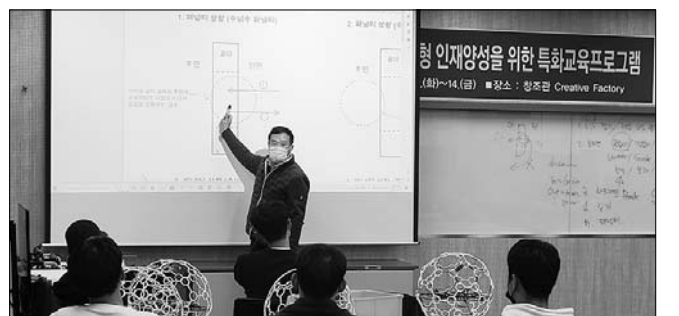
전북대 도서관, 김호연 작가 초청 북 콘서트... 17일 열려

전북대학교 도서관(관장 정안성 교수)은 오는 17일 오후 2시 학술문화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 콘서트에 참여하는 김호연 작가는 지난해 4월 '불편한 편의점'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불편한 편의점 2'를 통해 20여 년을 딛고 베스트셀러 소설가로 거듭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역 노숙자 '독고'가 작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현재 이 소설은 내년쯤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북 콘서트에서 김 작가는 전북대 학생 및 지역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작품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3일까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신청한 50명에게 저자의 출판 도서가 증정되며, 학부생들에게는 콘서트포인트도 주어진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1~14일 4일 간 4차산업혁명(4R)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특화교육프로그램 오늘까지 운영

드론 조종 등 직접 실습도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11~14일 4일 간 4차산업혁명(4R)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드론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기초 및 응용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전공 관련 산업체뿐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산업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드론이론 및 응용분야, 드론 수리, 드론 조종, 드론 축구 교육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최승훈 사업단장은 "이번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드론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운용 기술을 습득하고,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취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공유와 협업을 통한 자기확장형 인재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통한 공공기관 취업정보 제공

국립군산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채용설명회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기획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담당자가 함께 진행했다.

채용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하반기 공개 채용에 관련된 내용과 공공기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질의응답 과정 등을 인사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평소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취업에 유용한 정보가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채용 설명회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스킬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공받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층에게 진로 탐색,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지도, 비대면 상담,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채용 설명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학생들이 직무 역량과 구직 스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손 씻기·살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